

목포 MICE산업 키워 지역경제 살린다

? MICE산업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아우르는 서비스 산업이다.



목포시는 올해 MICE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300명 이상 대형단체 행사로 총 4500명(8회)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사진은 목포에서 개최된 철도학회 학술대회(왼쪽)와 한국 비파괴검사학회 모습.

목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MICE 산업이 호남선KTX 개통과 맞물려 급성장하면서 잠재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목포시는 MICE산업의 성장세를 발판삼아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고하도 유원지 개발 등을 담은 '뉴 관광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어 내년에도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에 나서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MICE산업을 통해 300명 이상 대형 단체 행사만 총 8차례에 걸쳐 총 4500명을 유치했다.

지난 17~18일에는 관광전문가 300여 명이 호남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목포를 방문했으며, 지난달 4일에 열린 제16회 첨단지능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에는 6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목포를 다녀갔다. 이들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유담산과 춤추

올 대형행사 8차례 4500여명 찾아 체류형 관광객 늘어 해상케이블카 등 연계...내년에도 다양한 행사 적극 유치

는 바다분수 등 목포의 관광명소를 견학하고, 다양한 남도의 먹을거리도 맛봤다.

또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1000여명, 비파괴검사학회대회 500명, 경북 왜관 새마을금고 500명 등 단체 관광객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근 신안군 등 3개 군과 연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구 중구청에서 대구, 경남, 경북, 충북의 기초자치단체와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학술대회를 비롯

한 다양한 MICE 관련 행사 개최로 숙박은 물론 음식, 쇼핑, 주요 관광명소 탐방 등 체류형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목포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해 다양한 MICE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MICE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산업 육성에도 주력중이다.

시는 '뉴 관광 프로젝트'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연계한 경제유발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하도 유원지권역에 해상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설치를 비롯한 오토캠핑장, 청소년 야영장 건설, 이순신 장군 유

적지 및 성과 복원을 추진한다. 또 북항(유달산 서면) 유원지권역에는 목포타워·펜션·별미촌·리조트·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관광객 중심의 음식문화 개선' 등 세심한 부분까지 정성을 쏟고 있다. 지역 특색과 계절별미를 살릴 수 있는 생선회, 낙지 탕탕이, 명게비빔밥, 전어 등 맞춤형 중저가 메뉴를 개발·선정하고, 바가지 요금 등을 막기 위해 가격 가이드라인까지 정했다. 또 북항 회 센터, 해양수산복합센터, 씨-푸드 타운 등이 밀집된 북항에 전광판을 설치해 '오늘의 시세'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지, 숙박, 음식점, 공연장 등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안·신안·영암 등 인근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 연계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소규모 예산으로 만든 '아름다운 동네' 시, 학교 담장 조형물 설치 등 환경개선 효과만점

목포시가 소규모 예산으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타 자치단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목포시는 삭막하고 딱딱한 학교 담장에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해 밝고 희망찬 등하교 길이 되도록 하는 '늘 푸름이 거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민들로부터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으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성장기 초등학생의 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목포 동초등학교 방음벽에 노래가 있는 디자인 조형물을 연출하고 횡단보도에는 옐로 카펫을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동초등학교 후문 담장인 길이 100m, 높이 4.5m의 방음벽에 악기, 음표 등 음악과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2곳의 횡단보도에 옐로 카펫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목포시 도시계획과와 산정동은 올 6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안서를 전남도에 제출해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밝고 희망찬 거리와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역민들의 반응도 좋다"면서 "앞으로 아파트 중심 주거 전용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 푸름이 가꾸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목포시 산정동 주민센터(동장 김영숙)는 지난해 5월 목포 동초등학교와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비를 들여 기존 방음벽 20m에 초등학생 15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벽화와 함께 스티아트 부조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했다. 이 사업은 목포시와 학교, 동 자생조직이 함께 참여한 민·관·학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동초등학교 후문에 설치된 음악 조형물.

백혈병 투병 동문돕기 458장 헌혈증·편지 전달

목포대생 모금 캠페인 훈훈

목포대학교 재학생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윤리교육과 졸업생을 위해 모금한 458장의 헌혈증과 따뜻한 손편지를 전달했다.

22일 목포대에 따르면 김학구 사범대학장을 통해 한 윤리교육과 졸업생이 백혈병으로 힘든 투병과정과 과중한 병원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목포대 학생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생으로 구성된 홍보대사와 도림문화기획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뜻을 담아 최근 도림캠퍼스 일원에서 '백혈병투병 동문 돕

기 사랑나눔 헌혈증 모금 캠페인'을 두 차례 실시했다.

재학생과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헌혈증 460장을 모금했으며 완치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학생들의 손편지까지 모아졌다. 모금된 헌혈증과 손편지를 캠페인 참여 학생들이 목포대 사범대학장실에서 투병중인 윤리교육과 졸업생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모금 활동에 참여한 손민재 홍보대사(한양여자대학교 4년)는 "헌혈증 모금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윤리교육과 선배님이 모든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친절·질서·청결·나눔 '새 목포 운동' 추진

목포시가 친절·질서·청결·나눔을 캐치프레이즈로 '희망찬 새 목포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 전개에 나선다. 이번 시민운동은 분기별로 명확한 주제를 정해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포시는 22일 "어려운 서민경제와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동네, 친절한 시민, 따뜻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 목포 운동'을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개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봉사(1분기), 청결(2분기), 질서(3분기), 나눔(4분기)' 등 분기별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사회단체와 유관기관과

의 연계를 통해 목포시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3개 동 주민센터별 특성에 맞는 세부 사업 시행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김찬의 목포시 자치행정국장은 "파주시의 '파주 사랑 POP운동', 순천시의 'NEW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정주시의 '시민 재능나눔 운동' 등 타지역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새 목포 운동'시책을 수립·추진하게 됐다"며 "역대 목포시 시민운동과 다르게 분기별로 과제를 명확하게 정립한 만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SNS 소통홍보관 운영...시정 알리기 호평

목포시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22일 "시정소식이나 시 추진 정책·주요 행사·민원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SNS 소통홍보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부서별 1명씩 총 67명이 부서에서 알려야 할 홍보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고 있다.

35년째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목포시 공보과의 최정호씨는 틈틈이 60~

70년대 목포시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나란히 페이스북에 올려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박우길(34)씨는 "생업에 쫓겨 시정 돌아가는 소식을 몰라 답답했는데 최근 들어 페이스북에 주요 행사와 관련 사진들이 올라와 시정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목포시 SNS총괄 관계자는 "시민 소통창구 역할과 함께 기존 홍보와 차별화된 홍보활동으로 스마트 행정 구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투데이 경매 부동산 경공매 추천물건

- 광주 남구 주월동 대지**
남구청에서 봉선동 방향 대로변 대지로서 상권우수 신축 건물 부지로 적합. 대지 684㎡ 건물 295㎡
감정가 16억 8천
최저가 11억 8천
- 광주 서구 마북동 주유소부지**
광주아울렛 인근위치 투자적합 대지 1132㎡ 건물 316㎡
감정가 9억 9천
최저가 6억 9천
- 광주 북구 유동 상가건물**
대로변 위치 아파트 재개발 지역인근 대지 796㎡ 건물 2704㎡ 지하 1층 ~ 지상 5층
감정가 24억 3천
최저가 17억
- 광주 북구 각화동 상가건물**
근교타운 맞은편 대로변위치 1층 기아자동차 전시장입점 지상 1층 ~ 3층 대지 115㎡ 건물 1683㎡
감정가 22억 3천
최저가 15억 6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건물**
대로변접 투자가치 좋음 지하 1층 ~ 지상 4층 대지 396㎡ 건물 1132㎡
감정가 10억
최저가 7억 3천

투데이옥션 이현석
010-9963-6345

NAVER 7년이상 드림꽃도매는 저변으로

드림꽃도매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백성) 302-0316-649511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가사 행정

민사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헌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